

## 장애인 구강관리 방법 알려드려요

치위생사 동아리는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사하구 거주 치위생사들이 장애인에게 충치예방 등 치아 건강 관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만든 이색 동아리이다. 회원은 7명이며 회합은 매월 2번째 화요일에 하기로 하였다.

코로나 19가 완화되면 사하구와 협력하여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6회 진행할 예정이며, 재료비와 수강료는 무료이다. 교육은 1 대 1의 교육이 가장 좋으나 수강생이 많을 경우에는 1 대 3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장소는 장애인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보조간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충치는 이 바깥 부분이 아니라 이 안쪽에 생긴다. 칫솔 잡는 방법과 칫솔모가 어디에 닿아서 어떻게 쓸어내려야 하는지 알려주고 치아 모형도 만들어서 치아에 흠이 생겨 충치가 생기고 이

와 이 사이에도 충치가 생긴다는 것을 교육한다.

장애인 치과 치료는 특성상 마취를 해야 한다. 일반 치과가 아닌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치과 질환은 구강 관리를 잘하면 예방이 된다.

김세영(장림동·50세) 회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실습을 할 때 직접 대상자에게 이를 닦아 주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닦게 해보았다. 본인은 이를 닦았다고 하는데 치위생사가 거울을 보여주면서 음식물 잔사가 남아있음을 알게”라고 말했다.

박현주(45세·하단동) 총무는 “장애인은 소통이 어려워 교육이 쉽지는 않지만 배운 것과 경험을 토대로 회원들과 함께 재능기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구강 건강 관리를 잘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가 함께 교육을 받아서 장애인이 제대로 양치질을 잘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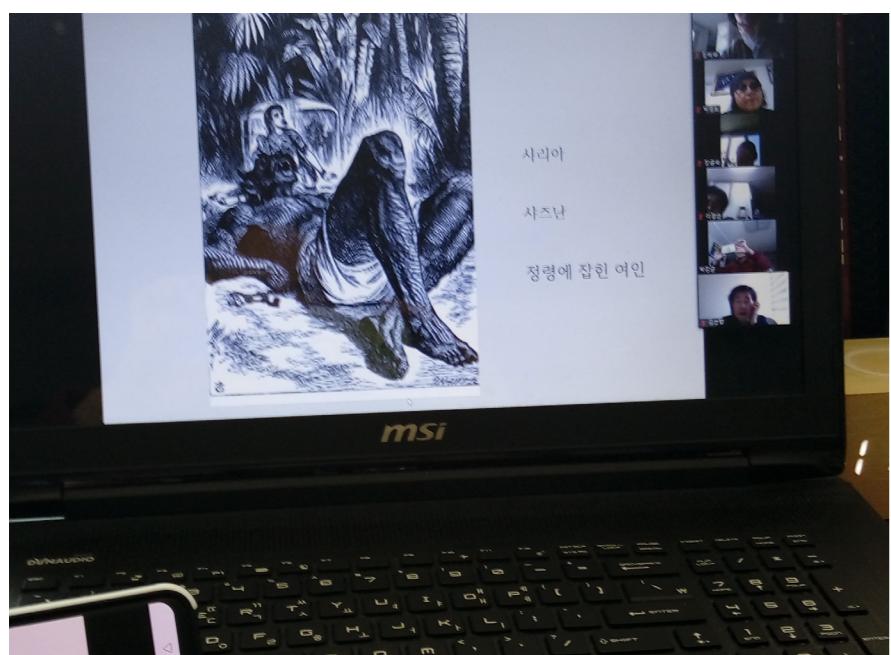
북구 화명중학교에서 치아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한 모습

도록 도움을 준다면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세영 회장은 “사하구에 유능한 치위생사들이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같

김필분 평생학습구민기자  
shjpun@naver.com

## 코로나를 이겨내는 2021년 겨울특강

### 위기에도 이어가는 비대면 교육 체험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강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강사님 목소리가 울려서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컴퓨터를 켜서 화면을 띄우고 스마트폰의 화면과 들려오는 소리를 조정하느라 마음이 바쁘다. 강의 하루 전에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앱을 설치하고 화면에서 강의를 듣는 방법을 배웠지

만, 강의 당일 실행을 해보면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라 하등거려졌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2021년 겨울 특강으로 10개의 강좌를 준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업에 활용하는 플랫폼은 줌(ZOOM), 밴드(라이브), 유튜브(사하구 공식 유튜브)이며 대부분은 줌(ZOOM)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에서 ‘ZOOM’을 찾아 설치하여 앱을 열고,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회의 ID와 암호를 입력하면 강의실 화면이 떠오른다. 강의 시작 전에 학습관의 서포터즈가 화면에 나와 강의 개요와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나면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였다. 강사는 PPT화면을 비추어 가며 강의를 진행하고 수강생들은 직접 대화나 문자메시지로 질문을 할 수 있었다.

기자가 참여한 “코로나 블루 완전타파! 치유의 인문학”과 “알면 득! 모르면 실! 2020년 연말 소득공제” 강의에는 22명과 35명의 수강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화면 하단에 나타나 있었다. 강의는 가정에서 수강했지만,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가질 수 있었다. 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 화면과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보면서 하였는데 수강 인원이 많아 질문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느꼈지만, 집안에서 공부하니 편안하고 실감나는 강의 진행으로 지루함을 느낄 수 없었다.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 사하배움마당

VOL.29

발행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 220-4801-6 팩스 : 220-4809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구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입니다.

발행일 : 2021. 02 . 20.

## ‘온앤오프’ 새로운 배움을 열다

사하구, 올해 대면·비대면 평생학습 계획 마련  
장애인 휠체어버스·중년남성 위한 아카데미 과정 신설

### 평생학습관 상반기 주요 프로그램

운영체제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요일	시간
온오프라인 혼합과정	꽃차 소믈리에 2급	4. 20. ~ 6. 29. (11회 32시간)	화	10:00~13:00
zoom	부자되는 재테크 전략 아카데미	4. 13. ~ 6. 29. (12회 24시간)	화	19:00~21:00
온오프라인 혼합과정	손말(수어)회화 기초반	4. 6. ~ 6. 29. (13회 26시간)	화	19:00~21:00
zoom	E.H. 곰브리치로 읽는 서양미술사	3. 3. ~ 6. 30. (16회 32시간)	수	10:00~12:00
온오프라인 혼합과정	책놀이지도사 통합(2,3급)과정	4. 8. ~ 6. 24. (15회 45시간)	목	10:00~13:00
온오프라인 혼합과정	3D 모델링 & 아두이노 활용 메이커스 지도사	4. 6. ~ 6. 25. (12회 24시간)	금	10:00~12:00
zoom	위기탈출! 구민 생활 안전교육	6. 11. ~ 6. 25. (3회 6시간)	금	10:00~12:00
온오프라인 혼합과정	똑똑똑 똘똘하우스 문고리 교체부터 훔 페인팅까지	4. 2. ~ 5. 7. (6회 12시간)	금	10:00~12:00
zoom	집에서 즐기는 세계 브런치 훔까페 메뉴 따라잡기	4. 4. ~ 4. 24. (4회 8시간)	토	10:00~12:00
zoom	지구를 부탁해 환경교육 & 리사이클링 공예	5. 15. ~ 5. 22. (2회 4시간)	토	10:00~12:00

## 단체엔 통 크게 빌려드려요

사하구 작은도서관 책수레 서비스 실시



사하구는 올 2월부터 책수레 서비스를 제공한다. ‘책수레’는 사하구 작은도서관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책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다. 사하구에 있는 직장,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 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면 된다. 입주자대표회가 있는 아파트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사하구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현재 12곳)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으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단체명으로 해야 하고 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빌려가는 단체는 작더라도 책을 관리할 수 있는 서가나 도서를 비치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 번에 최

## 찰칵! 학습현장

### 집에서 관람하는 부산현대미술관

평생학습관 비대면강의 영상 제작



‘도슨트가 들려주는 현대미술관 렌선탐방’ 강좌를 위해 이경화 강사가 영상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이 강좌의 영상은 사하구 공식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다.

## 숲소리 물소리 들으며 ‘우리 같이 걸을래?’

자연 느끼고 생태 배우는 ‘4개 구역 13개 코스’ 매력 제각각

### 사하자연학교 길을 따라

<1> 여정을 시작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사하구는 자연을 배움터 삼아 생태 고우니 해설사들이 상세하고 재미있는 해설을 들려주는 사하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사하자연학교 코스를 직접 따라가 보며 체험하는 기회를 시작한다. 각 탐방코스의 매력을 소개하고 사하의 자연을 느껴보자 한다.

사하자연학교의 출발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고우니 5명이 몰운대 코스를 운영했다. 점차 입소문을 타고 자연학교를 찾는 구민이 늘어나면서 2015년 승학산 자연학교 코스를 추가 개발하였고, 우리구 생태 분야 전문해설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설사 명칭도 ‘생태 고우니’로 바꾸었다. 2016년 ‘생태 고우니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로 사업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해설사도 4기까지 선발했다. 지난 해에는 을숙도, 아미산 코스를 추가로 발굴해 한층 확대되고 알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각 코스의 특성을 살려 생태 관찰, 체험, 공예활동도 함께 운영된다.

사하자연학교는 4개 구역, 13개 코스로 운영 중이다. ‘몰운대 자연학교’는 다대포 끝자락에 위치한다. 산책로를 따라 몰운대 동남쪽 해안까지 조간대의 다양한 생물을 체험하는 갯바위길, 빠곡한 곰솔숲의 산책로를 따라 다대진 동현까지 가는 곰솔길, 몰운대 원면 산책로를 따라 명상과 감각체험을 하는 산새길, 모래갯벌과 잔디생태 공원길로 조성된 파도길, 갯벌 동식물을 체험하는 생태길이 있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www.saha.go.kr/edu  
051-220-5546~7

이경녀 평생학습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 상반기 사하자연학교 참가자 모집

사하구는 올해 상반기 사하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운영기간은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4시 두 차례씩 진행된다. 화요일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단위, 토요일은 가족단위 및 일반인(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체험료는 무료이며, 초등학교에는 이송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2월 16일부터 선착순 마감하며 참가신청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몰운대 자연학교>



<승학산 자연학교>



<아미산 자연학교>



<을숙도 자연학교>

### 평생학습 러닝스타 다대도서관 독서회 이보경씨



여 오고 있다. 이보경 씨는 책 읽는 시간이 즐겁고 독서회에서 책으로 소통하는 날이 너무 설레고 기다려진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책과 더불어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환하게 웃는다. 원래 독서지도교사였던 이보경 씨는 감천햇불작은도서관에서 처음 독서지도 강의를 맡게 되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다대도서관과 관내 작은도서관에서 독서지도교사로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보경 씨는 “공공기관 강사가 사교육 강사와 별 차이점은 없지만 아이들을 새롭게 만난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다. 아이들은 엄마가 신청해줘서 무슨 수업인지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수업시간보다 일찍 와서 수업을 기다리는 행복한 표정을 보기도 하고, 그 친구들과 책이라는 매개로 함께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소통하는 것이 보람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도전하는 것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자신만의 자세라고 한다.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고 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사 역량강화 과정, 북아트지도사 과정, 인문학지도사 과정 등을 수료했다. 행복학습센터에서는 역사북아트지도사, 행복한 자녀를 위한 하브루타독서법 등을 수료했다. 학습한 것 중에서 사진 찍는 기술은 수업사진, 아이들 활동사진 찍는데 도움이 되었고, 강사 스킬업 강좌 때는 말투, 억양, 표정, 의상, 액세서리 연출법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늘 배움을 실천하는 그녀는 강사활동을 하면서 한국사지도사, 중등통합논술지도사, 역사북아트지도사, 하브루타지도사 등의 자격도 취득했다.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기준에 하던 수업에도 응용을 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보경 강사의 프

로그램이 입소문이 나서 강서구, 서구, 수영구等地의 도서관에서도 수업의뢰가 들어와 현재 다수의 도서관에 출강 중이다.

이보경 씨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고 나서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전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독서회 회원이나 동료 강사 등 지인에게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같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녀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자신도 대면수업을 하고 싶고 여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고명옥 평생학습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 배움을 늘 실천하는 평생학습러

김미연 평생학습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 똑똑~배움터

#### 행정, 보건, 보육을 한 곳에서 해결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지난 1월 18일부터 다대포항은 해산물과 바다 냄새 그리고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의 새 건물 냄새도 어우르게 되었다. 복합청사는 다대포 항역 3번 출구에서 10분 내외의 짧은 거리에 있다. 복합청사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제법 많은 충계는 보행약자에게 불편을 줄 것 같았다. 그러나 조만간 설치가 끝나는 15인승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다.

1, 2층의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의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가족품앗이 활동, 육아프로그램 개설, 장난감 대여실을 운영한다. 3, 4층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초건강 측정, 운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2층 유아 화장실의 남·여 구분과 3층의 수유실 그리고 각 층에 설치된 점자 안내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배려로 생각되어 훌륭했다.

2층 공동육아나눔터는 감천, 하단, 구평에 이어 4번째로 개소되었다. 이곳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육아정보의 공유 그리고 가족품앗이 활동으로 활력을 얻는 장소로 이용된다. 음악, 미술, 체육 상시프로

### 실감나게 찍어서 평생학습 전달하자

사하구 평생학습 실감스튜디오 개관

코로나19가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다. 평생학습도 예외가 아니다. 학습자가 정해진 장소에 가서 수업을 듣던 방식에서 이제는 집에서 유튜브, 줌, 밴드라이브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평생학습을 접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3층의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건강상담실과 보건교육실, 주민참여실이 있다. 건강상담실에서는 건강측정과 체성분,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대한 상담을 하고 보건교육실에서는 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예방관리사업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완화 시 고혈압·당뇨 바로 알기 교실과 건강걷기 교실, 견기지도자 양성 등 프로그램도 열 계획이다. 4층 맞춤형운동실에서는 체력진단 장비로 자신의 체력을 진단할 수 있고, 체육지도사의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 댄스와 요가와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실도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공유인 담당자는 이곳을 통해 사하구민의 더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정동 ‘학습시민센터’안에 있는 실감스튜디오에는 마이크, 삼각대 같은 촬영에 도움이 되는 장비와 조명, 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촬영 장비(카메라나 핸드폰)는 이용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방송시설이 잘 되어있어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개인방송을 하는 일반인, 온라

인강의를 하는 강사, 동아리 등 사하구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실감스튜디오를 3회 이용했던 ‘말끄미동아리’ 회장 이해진(44세·장림동) 씨는 “스튜디오 대관시간이 2시간인데 촬영준비부터 실제 촬영까지 해야 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조명과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어 촬영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사용소감을 말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핸드폰에 삼각대와 마이크를 연결해 미리 만들어간 대본을 옆에서 읽어주고 그에 맞춰 손동작을 영상으로 찍었다. 이번 영상은 동아리 회원들과 정보공유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올해도 스튜디오를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감스튜디오를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나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주민 누구나 실감스튜디오를 이용하여 품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평생학습을 경험하길 기대한다.

문의 : 사하구 학습시민센터  
051-220-5549  
(www.saha.go.kr/edu)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